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질서”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달라고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성경봉독** : 신명기 21장 15~17절

※ 아래의 질문들은 각 구역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넣고 빼가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두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 부담 없이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 한가지씩을 우측에 앉으신 구역원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2. 지난 한 주간동안 묵상한 큐티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되었던 말씀 한 구절을 좌측에 앉으신 구역원과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3. 지난 주일영광예배때 나눈 말씀을 삶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4.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 또한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특히나 패역한 자녀에 대해 성경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죽일 것’이라 말씀할 정도로 무섭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말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 21:21)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_____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5. 신명기는 ‘악한 죄를 범해 죽고 나무 위에 전시한 죄인’을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어떤 악한 자들이 이 신명기의 구절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오해하게 하고, 다른 복음을 퍼트려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미혹하고 속이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이런 오해를 파훼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_____)라 하지 아니하고, 또 (_____)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전 12:3)

6. 예수님은 사형당한 후에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사형틀에 달리시고, 그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서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습니다.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만 했던 과정이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1.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하는 과정에서 여성 포로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포로로 잡힌 여인이라 하더라도, 그를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고 일련의 정결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된 후에,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요. 다음은 그중 일부의 말씀입니다. 괄호()를 채우세요. (신 21:13) 또 포로의 ()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후에 네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7-2. 포로로 잡아온 여인이라 하더라도 마음에 들고 사랑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지난한 과정을 인내할 것과 혹시 헤어지게 되더라도 다시는 종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이고 질서인데요. 현재 우리는 구역이나 기관식구를 대할 때,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8. 모세는, 갈등이 있어서 사이가 좋지 않게 된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원수’가 아닌 ‘형제’로 여기고, 그의 가축이나 물품을 잘 보관하고 주인에게 전해줄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의 핵심은 결국 “네 형제를 ‘반드시’ 도와주라”는 것인데요. ①원수와도 같은 사이였지만 먼저 선을 베풀고 도움을 줌으로 관계가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②다른 사람을 도와주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③또 다른 한편으로, 남을 도와주는 인생을 선뜻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유롭게 나눠 주세요.

*** 합심기도 :**

1. 가족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의 질서와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옵소서
3. 말뿐이 아닌 실제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421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광서 목사)